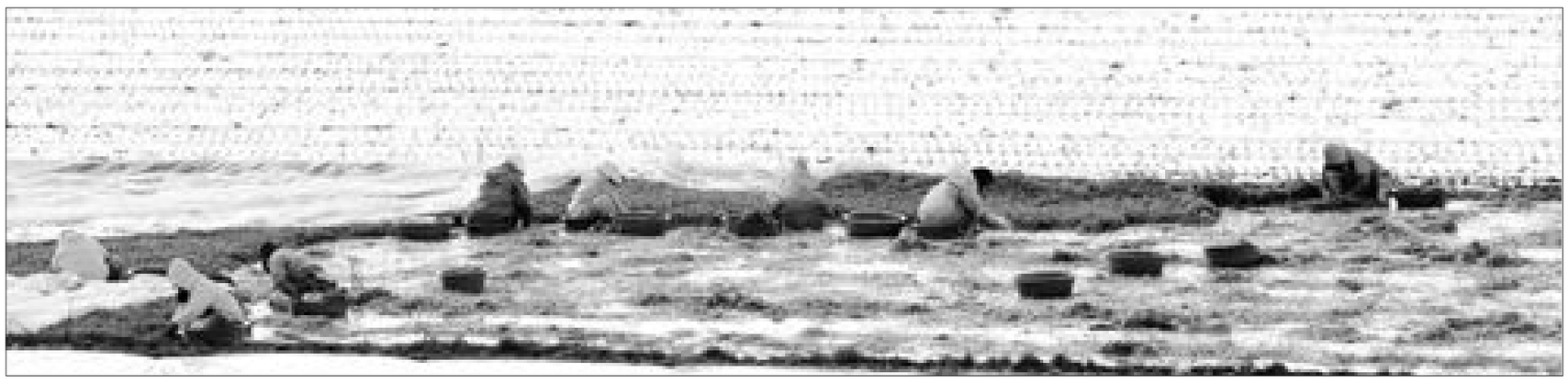


눈 속 미나리 수확 영하의 한파가 몰아친 23일 나주시 삼도동 들판에서 겨울 미나리를 수확하는 아낙네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미나리는 4kg 한 묶음 기준으로 1만 4천원에 판매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리도 어엿한 광주시민 수돗물 먹게 해 주세요"

광산구 용곡마을 100여 가구 지하수 불편 하소연

"우리도 광주시민들인데, 대한민국 광역시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게 어디 말이 됩니까?"

설 연휴를 앞둔 23일 광주시 광산구 용곡동 용곡마을. 계속된 가뭄 속에도 '문명의 이기'인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100여 가구 300여명의 주민들은 설 음식장만 등으로 늘어난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한 주민은 "집집 마다 전기 모터를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둘째치고 우리도 광주 시민인데 단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소외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아 집집 마다 마구잡이로 지하수 관정을 뚫어야 했다. 그나마 시설하우스 농가 등에서 관정을 뚫은 뒤 쓰지 않고 매설하는 바람에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돼 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마을입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영애(여·67)씨는 "최근 들어 받아놓은 물에 사흘도 안돼 이끼가 심하게 끼는 등 수질이 나빠졌다"며 "주민 회의를 거쳐 조만간 수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노(46) 통장은 "주민들이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 설치 민원을 넣었지만 예산 문제 때문인지 3년째 응답이 없다가 최근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상수도 연결 신청을 하면 검토 후 공사에 들어가겠다'는 반쪽 답변을 보내왔다" 말했다.

이씨는 마을입구 게시판에 안내 벽보를 붙이고, 집집 마다 돌아다니며 상수도 개설 희망 신청자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가구별로 86만원의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주민 김종실(63)씨는 "다른 마을처럼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분담금 때문에 매일 물을 끓여 마시는 등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에는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마을은 서구 6곳, 북구 12곳, 광산구 92곳 등 모두 110개 마을, 4천801가구(1만975명)에 이른다. 이들 마을 주민들은 공동으로 지하수를 뚫어 물탱크에 저장해 사용하거나, 가구별로 지하수를 뚫어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고 지하수가 오염된 곳을 중심으로 매년 6~7개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지만 수도관 설치·유지 비용을 감안하면 모든 마을에 당장 상수도를 설치하기는 힘들다 "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선대 법인 정상화 또 미뤄져

사학분쟁조정위, 위원장 뽑지 못해

조선대 등 분규 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결정해야 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올해 첫 전체회의가 22일 열렸으나 공석 중인 위원장을 뽑지 못한 채 또 다시 공전됐다.

조선대에 따르면 대학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석인 사분위 위원장을 뽑는 것이 최대 관건이지만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선출하지 못했다.

조선대는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분위원들은 다음 달 5일 열릴 회의에서는 반드시 위원장을 뽑겠다는 입장을 정리, 차기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분위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주경복 위원의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과 관련, 사분위원은 관련 법에 임기가 보장된 만큼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위원들이 세종대 등에 임시이사를 재파견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빚어져 위원장 선출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채희종기자 chae@

박광태 시장 '박광태군' 초청 사연

이름 때문에 놀림 당하는 부산 초등생 어머니 편지 "광태는 좋은 이름" 격려

박광태 광주시장과 부산의 초등학생 박광태 군이 만난다. 박 시장과 같은 성과 이름을 갖고 있는 부산 지역 초등학생인 박군 어머니의 간청에 따른 것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박군의 어머니는 광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이름 때문에 상심한 아들을 위로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박 군의 어머니는 "약간 소심하고 순한 성격을 가진 아들이 이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가끔 힘들어 한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수년 전 '광식이 동생 광태'라는 영화가 개봉한 뒤 친구들의 놀림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형제의 판이한 사랑 방식을 다룬 이 영화 때문에 친구들이 박 군을 '광식이' '광어' '광돌이' 등으로 부르며 놀린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아들이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놀림의 강도가 더 심해질 것 같다"며 "이름으로 인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메일을 읽은 박 시장은 "나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니 안타깝다"며 "광태 군이 만남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서겠다"고 흔쾌히 만남을 허락했다.

박 시장은 오는 29일 박군과 어머니를 광주시청으로 초청, 자신의 삶과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박군을 격려한 뒤 기념 사진 촬영 등 조촐한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남대 '박현주 장학생' 40명 선발

미래에셋, 1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전남대는 23일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장학생 40명을 선발,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주 재단은 최근 전남대에 1억6천만원을 맡겼으며 대학 측은 조만간 상경계열 16명과 인문사회, 이공계열 각 12명 등 모두 40명을 선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전남대는 성장과정과 대학생활, 장래포부 등을 서술한 자기소개서와 인성 및 가치관, 적극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도교수 추천서, 장학생 선발위원회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비 보조가 필요한, 열정이 넘치는 재학생들을 우선 선발해 달라는 재단 측의 당부에 따라 최대한 이 조건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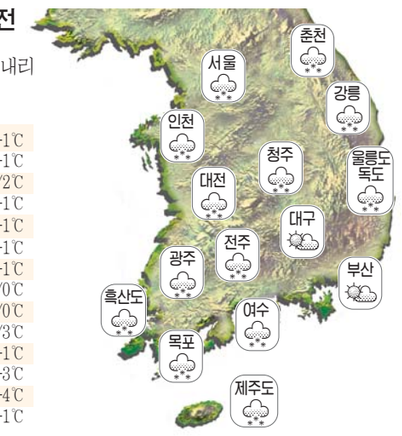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7분 해짐 17시 52분 / 달뜸 06시 13분 달짐 15시 53분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

대체로 흐리고 눈이 많이 내리겠다.

광 주	흐리고 눈	-6/-1℃
목 포	흐리고 눈	-5/-1℃
여 수	흐리고 눈	-6/2℃
완 도	흐리고 눈	-4/-1℃
구 례	흐리고 눈	-8/-1℃
해 남	흐리고 눈	-4/-1℃
장 흥	흐리고 눈	-4/-1℃
고 흥	흐리고 눈	-8/0℃
순 천	흐리고 눈	-5/0℃
영 광	흐리고 눈	-7/3℃
진 도	흐리고 눈	-3/-1℃
전 주	흐리고 눈	-9/-3℃
남 원	흐리고 눈	-10/-4℃
흑산도	흐리고 눈	-4/-1℃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목포	00:30	06:10
먼바다	서~북서	3.0~4.0m		13:33	19:04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2.0~4.0m	여수	08:34	01:48
먼바다	서~북서	3.0~4.0m		20:16	14:3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날 씨						
최저/최고	-6/1	-6/2	-6/4	-3/8	0/9	3/7

설 연휴 10~20㎝ 폭설

광주·전남 강추위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져 힘든 귀성길이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24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강추위와 함께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된다"며 귀성객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남해안지역은 1~5㎝, 전남동부내륙지역은 5~10㎝ 그 이외의 광주·전남지역은 10~20㎝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0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5일은 낮부터는 눈과 바람이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영하 6도~영상 1도로 예상된다.

설인 26일은 눈은 내리지 않고 구름만 끼겠다. 한편, 기상청은 23일 오전 11시를 기해 함평·영광군 등 서해안지방에 대설주의보를 내렸으며, 대설특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액 학원비 특별 점검 전남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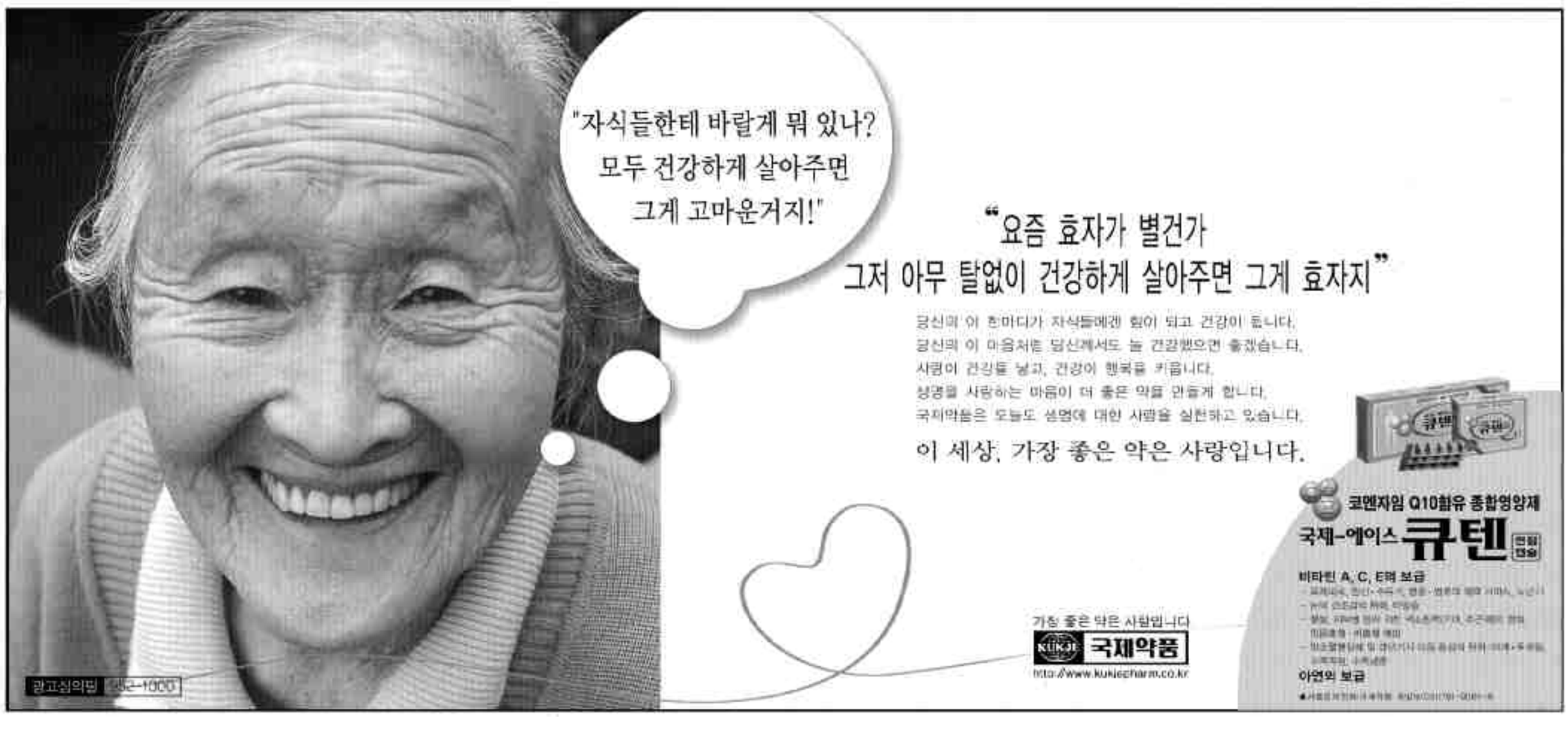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8일 목포, 순천, 여수 등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액 학원비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과 학부모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 6개조가 투입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방학을 틈타 학원비를 기습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연세대 2012 입시 대학별 고사 도입

연세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입학하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이전의 본고사에 해당하는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대학별 고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한다.

연세대는 전체 정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수시모집에서 대학별 고사 전형으로 수시 정원의 40~60%를 뽑고, 나머지를 학생부 성적(20~40%)과 입학사정관제(20%)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